



1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2 산청군 기산국악당 전경 3 국악그룹 '이상'

‘2021 산청국악축제·국악힐링콘서트’ 산청 기산국악당 매주 토요일 국악 향연

우리 국악의 전통과 현대를 이으며 ‘국악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있는 산청군과 기산국악제전위원회(위원장 최종실)가 ‘2021 산청국악축제,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국악힐링 콘서트’를 연다.

산청군과 기산국악제전위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를 시작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기산국악당에서 국악 공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11월 6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토요일 국악 공연은 2019년부터 진행해 온 ‘기산국악당 토요일상설공연 해설이 있는 기산이야기·치유악 힐링콘서트’의 뒤를 잇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다.

국악계의 큰 스승인 기산 박헌봉 선생의 유지를 잇는 것은 물론 젊은 국악인에게는 무대에 올라 기량을 선보일 기회를, 산청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무형문화재 등 명인들의 예술세계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은 한여름인 7월과 8월 셋째 주까지는 잠시 쉬며, 8월 28일부터 다시 무대를 꾸민다. 공연 일정은 날씨 등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상설공연의 첫 시작을 알리는 송파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는 서울 송파구에 전승해 온 탈춤놀이이다. 2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놀이는 승려의 타락과 가축 간의 갈등 등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냈다.

두 번째로 열린 진주삼천포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은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전승돼 온 대표적인 영남농악이다. 기산 박헌봉 선생이 앞장서 힘쓴 덕분에 1966년 6월 농악 부문에서 처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됐다. 이후 여러 지역의 농악이 문화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고유번호의 변경을 거쳐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로 등록돼 전해진다.

공연 상세일정은 기산국악당(☎ 972-4549)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산청군과 기산국악제전위는 공연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무대 주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산국악당 상설 국악공연은 이제 산청군과 남사에담촌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경남은 물론 전국 각지의 무형문화재 공연을 매주 주말 감상할 기회인 만큼 많은 분이 즐겨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3

기산국악당
토요일상설공연

2021

산청국악축제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국악힐링콘서트

2021년 6월~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남사에담촌 기산국악당

6. 5 (토)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9. 4 (토)	이정우의 타악여행 'SOOGO'(秀鼓)	10. 2 (토)	사물놀이 "느닷"
6. 12 (토)	국가무형문화재 제 11-1호 진주삼천포농악	9. 11 (토)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이생강	10. 9 (토)	연흥관 피리 "길"
6. 19 (토)	박안지, 김환복, 신찬선, 정현진 사물광대	9. 18 (토)	국악그룹 '이상'의 Urban 풍류	10. 16 (토)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6. 26 (토)	전희예술단 '놀다' 이곳에서			10. 23 (토)	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8. 28 (토)	전보현의 師弟同行 사제동행			10. 30 (토)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
				11. 6 (토)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주최 | 산청군 주관 | (사)기산국악제전위원회 후원 | 서경방송
문의 | 055-972-4549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상동길 69